

'우생순' 金보다 값진 銅 사냥 나선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오늘 오후 2시 30분 헝가리와 3~4위 결정전

‘금빛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꿈이 좌절된 여자핸드볼이 아쉬움을 접고 ‘값진 동메달’ 사냥에 나선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3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헝가리와 3~4위 결정전을 치른다. 한국은 21일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경기 종료 순간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 때문에 28-29로 졌고, 헝가리는 이어진 4강전에서 러시아에 20-22로 패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대회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올림픽에 참가한 여자핸드볼이 준결승에서 진 것은 2000년 시드니대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다른 대회에서는 모두 결

승에 올라갔고 금 2, 은메달 3개를 수확했다. 시드니 때는 덴마크와 준결승에서 29-31로 진 뒤 동메달 결정전에서 노르웨이를 만나 21-22로 아쉽게 패했다. 준결승 진출 좌절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동메달을 낚던 한가지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선수들은 준결승에서 ‘판정’ 때문에 무너졌지만 실력이 모자라 졌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금메달은 놓쳤지만 아쉬움을 떨쳐 버리고 금메달 만큼 값진 동메달을 꼭 수확하겠다는 다짐이다. 더구나 준결승 상대인 헝가리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33-22, 11점 차로 크게 대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가득하다.

노르웨이전 직후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던 최고참 오성욱(36·히포방크)은 “선수들이 오늘 아침 소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기는 했지만

男 핸드볼 폴란드에서 24일 7~8위 결정전

20년 만의 메달 꿈을 낚던 남자 핸드볼대표팀이 폴란드에 패해 7~8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김태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핸드볼 5~8위 결정전에서 폴란드에 26-29, 3점 차로 졌다.

동메달을 꼭 목에 걸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분위기도 다시 예전처럼 밝아졌다”고 전했다.

오성욱은 또 “개인적으로는 금, 은메달은 따보았지만 동메달은 아직까지 없다. 마지막 올림픽이니만큼 반드시 이겨 따 금-은-동메달을 모두 보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열린 또 다른 5~8위 결정전에서는 러시아가 덴마크를 28-27로 잡았다.

지난 20일 스페인과 8강전에서 패하며 메달 목표를 접은 한국은 이날도 패하며 7~8위 결정전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대회 폐막일인 24일 오전 9시(한국시간) 덴마크와 7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폴란드와 베이징에 오기 직전 인천에서 가진 평가전에서 33-27로 이긴 적이 있지만 이날 폴란드는 그때와 달랐다. 역대 전적에서도 2전2패를 기록했다.

한국 여자 핸드볼 “결과 승복” IHF에 ‘판정 불복’ 이의 철회

“남은 경기 최선 다하겠다”

대한핸드볼협회가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노르웨이와 준결승 패배와 관련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했던 판정 불복 이의를 철회했다.

조일현 핸드볼협회장은 2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HF에 계속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자대표팀은 21일 저녁 열린 노르웨이와 준결승에서 계속 뒤지다 종료 6초 전 28-28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경기 종료 버저가 울리는 순간 노르웨이에 버저비터를 얻어맞아 28-29로 패했다.

경기 직후 협회는 한국선수단과 함께 노르웨이의 결승골을 인정하지 못하며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소청을 IHF에 냈다. 하지만 이날 새벽 IHF는 소청 기각을 통보해왔고 협회는 마지막 수단으로 IHF 배심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일현 회장은 “배심원단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늘 정오까지 내야 했던 1천500 스위스 프랑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서 이의제기를 포기했다”고 전한

뒤 “결과에 승복하고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철회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고, IHF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여자 뿐 만 아니라 남자대표팀의 남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 소청을 했을 때 방송중계 화면을 명백한 증거 자료로 제시했지만 비디오 판독 전례가 없다는 말만 하더라. 또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가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며 득실을 따져보니 철회 쪽으로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대표팀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임영철 감독과 면담을 했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동메달 결정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조일현 회장은 “대회가 끝난 상황이라면 마지막까지 항의를 했겠지만 아직 진행 중이어서 철회를 결정했다”며 “재경기를 이끌어냈던 각오로 핸드볼에서 심판 판정이 애매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은 4강 좌절

중 마린에 0-4 패배



탁구

남자 탁구 대표팀의 ‘만형’ 오상은(31·KT & G)이 만리장성에 막혀 단식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오상은은 22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8강에서 이면타법의 ‘고수’ 마린(중국)에게 0-4(3-11 5-11 9-11 10-12)로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한국은 단식에 출전한 남녀 6명 전원이 4강 문턱에 가지 못하고 탈락했다.

반면 중국은 2004년 아테네 대회 2관왕 장이닝과 2000년 시드니 대회 챔피언 왕난이 여자부 단식 결승을 벌이고 남자도 왕하오, 마린, 왕리진 등 3명을 4강에 올렸다.

세계랭킹 15위 오상은이 유럽의 ‘강호’ 티모 불(독일, 세계 6위)을 16강에서 꺾은 상승세를 살리지 못하고 마린에게 털미를 잡혔다.

美 여자축구 2연패

브라질에 연장 승부 1-0 승



축구

미국 여자축구가 속적 브라질을 꺾고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미국 여자 대표팀은 지난 21일 저녁 중국 베이징 궁전경기장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축구 결승전에서 연장 전반 타진 칼리 로이드의 결승골에 힘입어 브라질을 1-0으로 물리쳤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우승한 미국은 이로써 대회 2연패를 이루며 세계 최강임을 입증했다. 여자 축구가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1996년 애틀랜타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른 미국은 이로써 3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가져갔다.

세계 최강 미국이었지만 랭킹이 3계단이나 아래인 브라질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전·후반 90분이 모두 흘렀지만 양팀은 득점 없이 0-0으로 연장전을 맞이했다.

연장에 들어서자 미국이 공세를 잡았다. 전반 3분 에이미 로드리게스가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을 날리며 브라질 골문을 두드렸다.

브라질이 잘 버티는 듯했지만 승부는 3분 뒤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로드리게스가 아크 정면에서 내준 볼을 로이드가 아크 왼쪽에서 한번 치고 나가더니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고, 볼은 그대로 오른쪽 골문 구석을 파고들었다.

브라질은 이후 총공세에 나서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미국의 수비벽은 견고했다. 특히 연장 후반 8분 ‘여자 호날두’ 마르타가 아크 오른쪽 뒤에서 감아찬 프리킥은 골대 왼쪽을 살짝 빗나갔고, 종료 직전 코너킥 찬스에서 헤나타 코스타가 골지대 왼쪽에서 찬 오른발 슈팅은 옆구리를 출렁였다.

앞서 열린 독일과 일본의 3-4위 결정전에서는 독일이 일본에 2-0 완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가져갔다.



환상 수중 연기

22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수영센터에서 열린 싱크로나이즈 경기에서 미국 대표선수들이 수중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올림픽

◇23일(한국시간)

▲남자 하키 5~6위 결정전(12시·한국-영국)

- ▲남자 축구 결승전(13시·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 ▲태권도 80kg초과급(14시·차동민 출전)
- ▲핸드볼 여자 3~4위 결정전(14시30분·한국-헝가리)
- ▲야구 결승전(19시)

◇24일

- ▲육상 남자 마라톤(8시30분·이봉주, 김이용, 이명승 출전)
- ▲남자핸드볼 7~8위 결정전(9시·한국-덴마크)
- ▲페마식(21시부터)



이연택 위원장 “환영 퍼레이드 외압 없었다”

메달리스트 귀국 지연 해명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22일 베이징시내 프라임호텔에 마련된 코리아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귀국 환영 행사와 메달리스트들의 귀국 지연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이 회장은 “귀국 환영식이 정부가 정치적으로 의도한 관제 환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당시 조직위원회 행사 등을 맡았던 PD 출신 이태행 씨라는 분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해왔다”는 이연택 회장은 “이 씨의 의견을 받아 이후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지만 정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준비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中, 유승민 탈락 주요 뉴스로

○중국 언론들은 22일 아테네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유승민(삼성생명)이 32강에서 홍콩의 복병 고라이작에게 2-4로 패한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는 22일 유승민이 2-4로 32강전에서 탈락함으로써 왕하오가 이번 대회에서 유승민에게 설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운영비용만 22억弗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용한 순수 운영비용만 22억 달러(약 2조3천억 원)를 초과했다.

BOCOG의 예산을 편성했던 중국올림픽위원회 웨이지중(魏紀中) 전 사무총장은 올림픽 운영 비용이 당초 책정했던 16.1억달러를 초과한 22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21일 보도했다.

류상 ‘최악 패배자’로 선정

○미국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베이징올림픽 ‘최악의 패배자(Beijing’s Biggest

Losers)’로 육상 남자 110m 허들에 기권한 류상(중국)을 선정했다.

포브스는 22일 인터넷판에 이번 올림픽에서 실망스런 성적을 낸 선수 7명을 뽑아 ‘패배자’로 이름붙였는데 그 중 1위로 류상을 지목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중국 최고 스포츠스타로 발돋움했던 류상은 이번 대회에서 2연속 금메달에 기대를 모았지만 아킬레스 부상으로 기권했다.

김창백 감독 연일 매스컴 장식

○중국 여자하키 대표팀을 사상 처음 올림픽 결승무대에 올려놓은 한국인 김창백 감독이 연일 중국 매스컴을 장식했다.

중국이 이번 올림픽 금메달 레이스에서 미국을 떨쳐내며 제1위 1위를 독주하고 있지만 유독 단체 구기종목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 여자하키팀의 분전이 막판 올림픽의 분위기를 한껏 달구고 있기 때문.

김 감독은 지난 1999년 중국 여자하키 대표팀을 맡아 ‘마귀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중국 여자하키팀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고 2004년 아테네올림픽 4위에 이어 마침내 이번 올림픽에서는 결승에 진출하는 기록.

태권도 퇴출 거론 자제해달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회가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퇴출설에 대해 “준비와 연구를 많이 하면서 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문제의 거론 자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은 22일 베이징 프라임호텔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OC 선거위원 준비과정에서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문대성은 또 IOC 선수위원 선거에 한 표를 부탁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약속을 청했는데 손가락만 내밀기에 잡았더니 바로 뼈 손가락을 댄 선수도 있었다. ‘내가 계속 이것을 해야 하나’하는 회의도 들었지만 후배들에게 어떤 기록적 역할을 하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버텼다”며 당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연합뉴스